

#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78호 | 발행인 : 백선희 | 발행일 : 2019년 12월 16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 I. 서론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시기에 중요한 모아애착 및 모유수유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집단 돌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과 안전이 요구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

- 현대사회의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더 많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임.
  - ▶ 이로 인하여 노부모 및 친인척 등을 통해 제공되었던 전통적 방식의 산후조리 및 돌봄이 어려워져 분만 직후의 임산부와 출생 직후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및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2017년도 출산 산모 대상 산후조리원 실태조사<sup>1)</sup>에 의하면 산모가 6주간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장소는 산후조리원이었고, 이용비율은 75.1%인 것으로 나타났음.
  - ▶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더불어 의료 관련 감염과 안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한편 생애 초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산후조리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신생아와 산모의 모아애착 형성, 신생아 및 산모 건강 등에 관한 관심도 사회적 환기를 요구하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 산후조리원이 신생아 시기에 중요한 모유수유, 신생아 돌봄, 산후우울증과 같은 산모 정신건강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관련 전문가 및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II.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2018년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584개소였고, 이 중에서 수도권이 60.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평균 이용요금은 247만원 정도로 나타났음.

- 2018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은 전국 584개소이고, 2016년도까지 증가하던 산후조리원은 2017년 이후 저출산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 이 중에서 수도권이 354개소로 전체 산후조리원의 60.6%를 차지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이정림·손인숙·최병민·엄지원·조미라·김희선, 2018)』에 기초함.

\* 본고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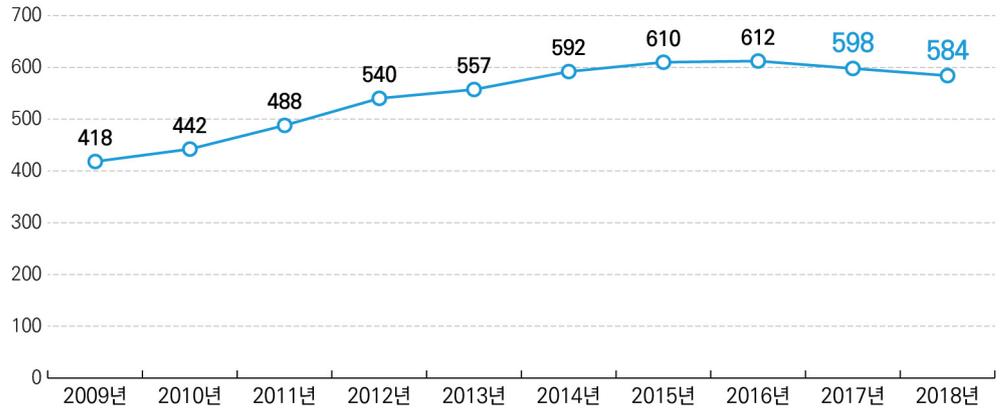
1) 보건복지부(2018).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표 1〉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 개소 수

구분	2009년	2011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418	442	488	540	567	592	610	612	598	584
수도권	252 (60.3)	259 (58.6)	291 (59.6)	334 (61.9)	346 (62.1)	365 (61.7)	373 (61.1)	375 (61.3)	361 (60.4)	354 (60.6)
기타	166 (39.7)	183 (41.4)	197 (40.4)	206 (38.1)	211 (37.9)	227 (38.3)	237 (38.9)	237 (38.7)	237 (39.6)	230 (39.4)

주: 1)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함.  
 2) 2018년도는 6월 기준. 나머지는 각년도 12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그림 1]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 개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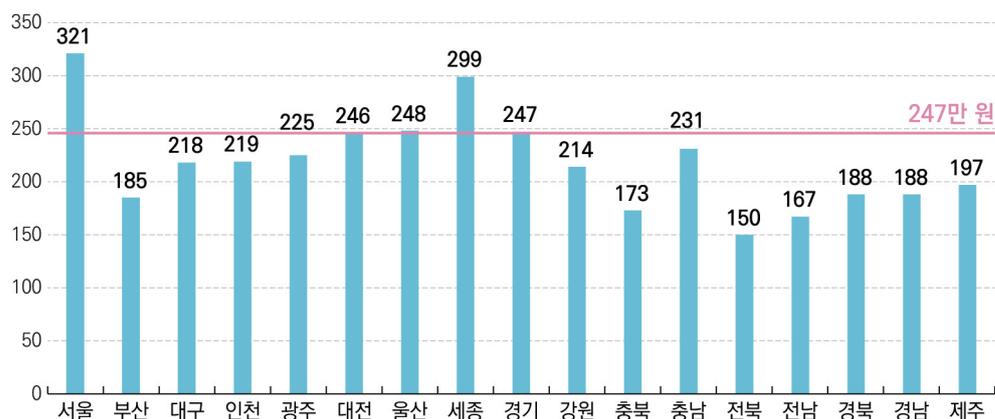
- 산후조리원 규모는 11~20인 규모가 56.2% 가장 많고, 다음으로 21~30인 23.8%, 1~10인 12.1%로 약 80% 정도의 산후조리원이 10~30인 이하 시설이었음.
  - ▶ 30인을 초과하는 대규모 시설이 7.9%이고 1~10인 시설이 12.1%로, 대규모보다 소규모의 산후조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 규모

구분	계	1~10인	11~20인	21~30인	31~40인	41~50인	51인 이상
계수	584	71	328	139	25	14	7
비율	100	12.1	56.2	23.8	4.3	2.4	1.2

주: 2018년도는 6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8). 내부자료.

- 산후조리원 연도별 평균 이용요금을 살펴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2주에 247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 서울이 평균 321만원으로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시 299만원, 울산 248만원, 경기 247만원, 대전 246만원 순이었음.
  - ▶ 200만원 미만인 지역은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였으며, 전북이 15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그림 2]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 2주당 이용요금

주: 2018년도는 6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8) 내부자료.

### Ⅲ. 산후조리원 질 관리 현황과 과제

2018년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 본평가를 수행 전에 보다 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와 연계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음.

- 2018년도에 공공산후조리원 3개와 민간산후조리원 10개소로 총 13곳의 산후조리원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선정하여 시범평가를 수행한 바 있음.
- 시범평가 결과 산후조리원 측과 평가를 주관하여야 주최 측 모두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음.
- 먼저,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규정 및 서류 구비 등과 같은 평가 준비에 관한 이해, 평가를 위한 공간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 산후조리원이 현재의 평가 체계를 수행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음.
  - ▶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의 평가 진행은 무리와 부담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평가를 실시할 주체(정부 혹은 위탁기관)의 입장에서도 평가를 위한 준비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 관련 일련의 지침, 규정 마련 등이 되어 현장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향후 3년간은 산후조리원의 본 평가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본 평가를 연계한 산후조리원 대상 감염 및 안전, 재난 시 대응 방안 등에 관하여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으로 제안되었음.
  - ▶ 컨설팅 제공에 대한 정책방안이 수용되어, 2019년도에는 전국 32개소의 산후조리원이 1~3차에 걸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였고, 전국 20개소의 산후조리원이 1일 방문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 보건, 보육, 안전, 및 산후조리원 운영자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3차에 걸친 산후조리원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1차와 3차에는 2명의 컨설턴트가 2차에는 1명의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IV.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산후조리원 평가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 지표에 관한 규정 및 서식 등의 배포 등이 필요함.

-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관리 방안
  - ▶ 산후조리원 평가지표의 실행을 높이기 위해 중요 지표에 관한 규정/지침 및 서식 등을 본 평가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작성하여 배포 하는 것이 필요함.
  - ▶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수행 인력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함.
  - ▶ 산후조리원 종사자 보수교육 여건 마련 및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취사부 및 청소부와 같은 기타 인력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함.
-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전담할 수 있는 평가 전담기구(사무국) 설치
  - ▶ 컨설팅 수행 인력 및 현장과의 연계를 위한 인력 관리, 컨설팅 결과에 대한 심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을 담당할 수 있는 평가 전담기구(사무국) 설치가 필요함.
- 모유수유와 초기 애착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 ▶ 산후조리원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홍보물 배포 및 동영상 제작 등이 필요함.
  - ▶ 부모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주체 및 문화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산후조리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정림 연구위원 leettu@kicce.re.kr